

# 소상공인 위한 소비 촉진·특례보증 확대 '성과'

광주시-기관, 경제 살리기 '원팀' 市·은행,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할인쿠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확대 지역 정치권, 추경예산 신속 추진

지난 1월23일 광주시와 경제·산업 분야 76개 지역 기관·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연초부터 지역 경제 관련 기관들이 총출동한 것은 다름 아닌 민생때문이었다. 광주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지역의 주요 기관들이 '원팀'으로 뭉친 것이다.

지난해 12월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정부의 정상적인 시스템 가동이 중단됐고, 제주항공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그나마 기대했던 연말 특수에 찬물을 끼얹었다. 안팎으로 움츠러든 소비 심리에 자영업자는 빗더미에 올랐다.

1월 당시 모인 76개 기관·경제·산업계 종사자 등은 소비는 늘리고, 부담은 줄이고, 투자는 키우는 경제대책을 공동추진하는 '2025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 (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 광주 결의대회를 열었다.

또 광주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카카오뱅크 등 금융기관 8곳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광주시와 은행들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해 저금리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광주시는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연장하고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확대,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도 추진했다.

결의대회 이후 한달이 지난 지금 광주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먼저 경제정책과에서 주도한 '소비 촉진 릴레이 캠페인'의 경우 사·자치구·공공기관·유관기관 등 24개기관이 참여했다. 캠페인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앞장서 소상공인 식당을 이용하고 각종 감담회 등 오찬·만찬도 이들 식당을 적극 이용했다. 이 캠페인은 2월까지 총 24회 실시됐으며 이 기간동안 소상공인 업장을 이용한 사람은 1264명으로 집계됐다.

상생카드 할인 확대도 추진됐다. 할인율을 상시 7%에서 1~2월 10%까지 확대한 결과 1월 상생카드 사용액은 100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144%가 상승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했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및 이자지원의 경우 보증규모 15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확대해 상반기에 1000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사업자들에게 50억원을 우선 공급했다. 협약 기관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은행 7개 기관(광주,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우리, 카카오)이며 이자 지원의 경우 1년간 3~4%(일반 3%, 중저신용자 4%)였다. 대출의 경우 2월부터 각 은행별로 실시 중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상반기가 지나야 파악될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중'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먼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700억원 중 상반기에 19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진흥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규모는 각각 30억원이다. 이밖에도 정부 추경이 편성되면 자금 증액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도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지난달 열린 '2025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 직후 광주 지역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구을) 의원은 "코로나19·비상계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닥쳤다. 현재 당에서 민간 소비 촉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뿐만 아니라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매출 급감·대규모 고용 위기도 지역의 큰 문제다. 중국의 공세로 업체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조정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선반영했고, 여수 등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예산이 신속히 투입돼 광주·전남의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정부의 조속한 추경 집행을 촉구해 하루 빨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정성현 기자

'소비 촉진 정책' 한달 변화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	참여기관 24곳 1264명 이용
상생카드 할인 확대	1월 발행 카드액 1006억원 전달 대비 144% 상승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반기 1000억원 지원 관광사업자 우선 지원액 50억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수출진흥자금 3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30억원



## 2025 광주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지난 1월 23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 상생의 가치로 지역 경제를



을 날린 사건들이 이어졌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날로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상생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헬렌켈러가 말한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광주상생카드다. 광주상생카드는 상생의 가치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실 예로, 앞서 언급한 팬데믹 상황에서 광주상생카드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됐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를 줄였지만 광주상생카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장려하여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 전영복 광주시 경제정책과장

'가화만사상'이라는 한자성어는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지역 경제에 적용하면, 지역 주민 간의 상생과 협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중요한 메시지로 연결된다.

그 중에서도 '상생'이라는 개념은 서로 도와가며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단순히 협력의 의미를 넘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그간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상생의 정신이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되어 왔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이 손을 맞잡고 협력하며 극복할 수 있었던 사례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상생의 가치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우리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속에 놓여 있다. 지난해 게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지역 경제에 직격탄

##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살아 숨쉬는 고티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홈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업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태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